01.28.화요일

* 협업을 위한 툴 논의  
  - 개발자와 기획자 모두 자료를 공유하는 게 좋아 (깃 or 구글 드라이브)  
  - 트렐로 (다같이 일정 공유하는 툴) 설명회 때 얘기함 – 다른 툴도 괜찮아
* MVP 프로토 타입  
  - 2월 20일 전까지 완성해도 좋다.  
  - Azure API 사용 권장. (시간 상)  
  - 100% 돌아가는 프로토 아니여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게끔 설계해도 좋아.  
  - 아마 오픈소스 10만 줄(주최측이 생각하는 기준인 듯) 중 우리가 짤 수 있는 줄은 몇 줄 안 될 듯.  
  - 깃허브에서 코드를 다 오픈해야 – 외주 막기 위해 – 과정을 보여줘야하기에 올림
* 고객의 Business Case를 찾아 그를 해결할 결과물 보여라  
  - 고객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핵심)
* 최근 인공지능의 트렌드과 국책 사업들 보여줬었음  
  - 이 사항들에 예민해보였음  
  - 헬스케어와 푸드테크 등  
  - lighthouse는 트렌디한 사항들을 해결하길 바라는 것 같음
* 툴 관리  
  - 팀원 간 사용할 툴을 통일하자  
  - DevOps 사용해볼까 논의 중
* 미리 학습된 Azure API  
  - 개발자가 부족하면 API 사용 권유  
  - API 없이 스스로 만들어도 상관없음  
  - API 사용하면, 사진의 얼굴을 인식하여 나이와 성별, 얼굴 표정까지 추론 가능
* 기술에 집중하기보단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 (시간 단축이 중요하다는 얘기)
* 유지수 : 개인의 처방기록,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개인 맞춤형 보고서 제작 –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조!
* 김재욱 : 시간 단축에 집중 – 회사의 일을 대신해주는 최적화 찾기를 생각했음  
  - 단순 반복 작업도 좋지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작업을 컴퓨터에 따라 모두가 동일한 역량으로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 생각  
  - 예. 용접 – 사람마다 능력이 다름. AI를 통하여 이러한 역량을 조절한다면(개인의 역량과 달리) 일이 편해지지 않을까
* 신승윤 : 사람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소유보다는 소비인 것 같음. 구독 서비스.나 공간 같은 것도 분리 되고 있음. 아파트 사이즈도 점점 작아지고 있음.(예. 스벅을 서재로 활용하고자 집을 작은 것을 사려고함.)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함. 현대인의 본연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함. 인간관계(불필요한 인간관계 줄이기)나 자아 찾기(업그레이드 및 인터넷서 페르소나 활용)도 그러해 짐.  
  - 음식이나 세탁 같은 것도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음. 더 좋은 품질로도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돈을 이용하는 것 같음.  
  - 알고리즘 정교화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특정한 서비스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 배민 같은 서비스도 사람들의 시간을 줄여주지 않나.  
  - 자동화 기술은 많이 보편되어 있음. 스페인은 나라가 커 자율주행 서비스 보편화 됨.  
  - 대형 SUV 판매량이 제일 많이 판매 됨. 이를 통해 소유보단 소비에 집중하는 (지금 제품을 받는 이 순간) 것을 알 수 있었음. 화장품도 마찬가지.  
  - 소비의 욕구와 자동화를 같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싶음. –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단 것을 알리고 싶은 욕구도 충족시키면 좋을 듯!  
  - 아마존 고처럼, 계산할 때 컨베이어 시스템활용해 물건을 올리면 자동으로 계산! – 기존의 매장 형태를 바꾸지 않고 적용 가능  
  - 소비자에게도 도덕성 강조하는 우리 사회 반영!  
  - 사이렌 오더, 이상하게 운영한 회사가 망함…  
  - 자동화!
* 이혜선 : B2C가 더 좋다 생각했는데, 오티 다녀오고 B2B로 해야하나 생각함  
  - 절약이 가능하단 것은 낭비된다는 것이 많다는 건데, B2C는 생각보다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어려워서 B2B가 이 시간을 더 줄여주지 않을까 생각함.  
  - 코인 세탁소가면 다 같은 세제와 섬유 유연제 사용. 아쉬웠움.  
  -요즘 생활에서, 이불의 먼지가 걱정됨. 그런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궁금함.
* 주최측은 B2B로 추진하는 게 익숙할 듯.   
  - 유일하게 주최측이 스타트업 밀어줌.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 집이 서울이 아니라, 대중교통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아까움.   
  - 카카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생각했음. 어떻게 하면, 그런 시간들의 최적화를
* 차가 막히는 현상.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것 때문에 생김. 모두 같은 속도면 안 막힐텐데.
* 상 받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되지 않은 부분에서 돈이 많이 오고 감. 일상적 부분을 다루는 것이 그런 부분까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 스터디 카페, 본인의 지문이나 카드로 입출입함. 만약 등록되지 않으면, 바로 잡음. 무인화되고 있음.
* 시간 절약  
  - 역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자. 첨단을 사용해서 고유의 감성을 전달하는 것.
* 알바 고용 프로세스  
  - 엄청 복잡함.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음.  
  - 대기업의 HR부서처럼  
  - 기존의 데이터 이용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  
  - 알바할 때, 자소서 문항은 알바하려는 곳이 원하는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  
  - 나의 자소서가 알바하려는 곳의 몇 점을 차지하는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음.
* Azure  
  - 얼굴 인식 API
* 연애  
  - 자신의 연애스타일을 컴퓨터가 정리해줌.  
  - 카톡 대화 분석  
  - 일상 카톡 기록을 모델에 넣고 학습  
  - 사람과 대화할 때, 시뮬레이션 가능
* 각 나라별 문화가 다르기에, 동아시아는 시간을 매우 중요히 여김. 행사를 얼마나 포멀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  
  - 남미는 약속 시간 안 중요해. 사업하러 만날 때도, 친해지는 것을 먼저 여김. (감정 교류)  
  - 사람의 첫 인상(나라에 따라)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
* 에듀테크 – 시장은 큰데 (줄어 들고 있으나) 표준화되지 않음.  
  - 얘. 산타토익
* 소시오패스
* 매스프레소   
  - 사진 찍어올리면, 해당 문제의 수식 알려주거나, 사람들이 해결방안 알려줌
* 어플 혹은 웹  
  - 외주 거리할 때, 외주의 상황을 알면 편할 것 같다.  
  - 내가 성공한 기록들! 몇 번의 미팅 성사 기록, 몇 명과 거래하는 지  
  - 이러한 데이터 셋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다면, 거래 판단에 좋을 듯
* 사람 평가  
  - 사람의 평가를 함.
* 유튜브에서 뷰티유튜버들이 보여주는 툴들 보여주기
* 음식 태그 분석해서(사진 찍어서 등등) 채식 주의자 1단계는 먹을 수 있음. 2단계는 안 됨. 이런식으로  
  -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듯. 자신의 음식 식습관에 맞게 할 수 있음.
* 치과 – 이빨 썩었는 지 판단. (사진)
* 길거리 헬스케어 샵 – 이니스프리 같은 곳.  
  - 거울에 사람 비치면, 얼굴에 맞게 화장.
* 지하철 – 자리 예약 – 사람들이 언제 내릴 리 파악 가능  
  - 출퇴근 시간 때 가능할 듯
* 건강에 대해 사람들이 안일하다  
  - 사람들의 예방이 아쉬움  
  - 예전 잘 사는 사람들만의 문화 (자신의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게 어떠한 가  
  - 소수의 특권층의 정보를 더 접근성 낮게 제공해주는 게 어떠한 가  
  - 허리가 아픈데, 어디 병원에 가야할 지 잘 몰랐었음. – 접근성 좋은 의료위키 (진단을 바랬음) – 하지만 AI가 책임을 져야하니 고민…
* 자소서 기반 기업이나 알바 추천  
  - 사람 뽑는 것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어플  
  - 강남 언니, 로톡 등등
* 금융권 – 토스,   
  - 상위 1프로 자산관리 시스템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  
  - 계좌이체 등을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함.  
  - 이를 통해 시간 절약도 많이 함.
* 지식과 기회의 평등화
* 셀카를 증명사진으로!  
  - 딥러닝 모델을 통해 구현 가능할 듯! – 사람 얼굴을 4배로 확대
* CCTV 확대하면, 화질 정확해지는 기술 활용 참고
* 자신의 증상 별로 예상되는 질병 예측  
  1. 탈모 예측  
  2. 일상적인 공개된 정보를 데이터화 하고, 개인의 데이터 첨부하면 질환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3.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의 성장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 음지에 있지만 양지로 나와야하는 정보를 다루는 것도 좋을 듯!
* 개인화 – AI 비서  
  - 자신의 신체정보를 입력해 학습… 하루에 4시간 걷고 지하철 2시간 타고… 하는 열량소비 학습해 살을 뺄 때 얼마나 운동해야 하는지, 알려줌.  
  - 타임 스케줄 관리도 가능  
  - 워치를 활용하는 게??
* 개인의 정보가 쌓일수록 보안 문제 대두돼…  
  - 보안시스템을 AI를 통해 강화하는 게??  
  - 아마존의 사이트 내 오류를 통해 특혜를 보는 사람들 잡아내는 사례. 이것은 시간 절약하는 사례. 참조하는 게??
* 절세하는 방법  
  - 알고리즘화로 구현가능하지 않을까
* SNS는 공개 데이터 크롤링  
  - 서울의 어느 장소 밀집도 파악 -> 행사 계획에 도움
* 유해 물품  
  - 자동화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 사람이 하나하나 물품 파악하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나??  
  - 아마 책임 때문에 자동화 시키지 않았을까??  
  - 찾아보니 프로젝트 진행 중임. 내년에 사업 확대될 예정. 아래 참조  
  <https://m.etnews.com/20190104000100?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 CCTV 모니터링 – 경찰이 일일히 봄  
  - AI 모니터 – 기획보단 기술적 관점이 크다  
  - B2G
*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음.  
  - vision으로도 인식가능한데, 연기탐지로 인식 가능하지 않을까…  
  - 비장애인 주차 구역도 마찬가지.
* 재무제표 파악  
  -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보고 판단해서 기업의 정확한 상황 진단.
* IBM 기업 참조
* AI 개발자와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었다면 문제 인식에 수월하지 않았을까
* 방 구조  
  - 시뮬레이션 모델이랑 실제로 보는 게 많이 다르다!  
  - 이케아는 AR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현실과 괴리가 있다  
  - 인테리어 소품을 살 때 내 방에 어울리는 지 실제로 보고 싶다!
* 분리수거 아이디어  
  - 50%는 설명
* nbdia  
  - 쓰레기 분리수거
* 모델을 기준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어떨까??
* 의류 스트리밍  
  - 코디를 구매자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하든지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옷을 빌려준다. 맘에 들면 구입.
* 식기 세척기  
  - 카페에서 이물질 인식해서 컴퓨터가 닦아주기.
* 하드웨어로 구현하려면 하드웨어 가져오는 게 좋을 듯. (식기 세척기)
* 키오스크  
  - 너무 많은 메뉴… 지체되는 시간 많아 – 고객 만족도 떨어져서 키오스크 늘려야해 – 비용 증가 – 문제…  
  - 얼굴 인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메뉴 추천 (이전 데이터 기반)  
  -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었다면, 다음에 카페라떼를 먹지 않을까 예상
* B2B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 교육  
  - 출석부를 나이스로 기록  
  - 수행평가 나이스에 기록 전 사라지면, 매우 곤란…  
  - 우체국 공익 크롤링 –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개선함  
  -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고, 이것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편할텐데
* 혈액 (정립되지 않은 프로세스)  
  - 혈액 재고량이 수요와 맞지 않음. 필요할 때 없고, 필요하지 않을 때 너무 많이 남는 문제가 있음  
  - 그래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수요 예측의 기대를 개선할 수 있을까
* 기부 (정립되지 않은 프로세스)  
  - 어디 단체에 기부하는 게 좋을 지. 기부하는 데 어디에 가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부하는 지 모르고, 어떻게 돈이 처리되는 지 알고 싶다… 기부를 할 수 있는 플랫폼  
  - 하고자 하는 기부 방식과 기부의 양을 골라 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 호주 산불. 원치 않는 기부가 많았다. 따라서, 올바르게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리고자 함.  
  - 자동화보단 최적화, 시간 절약.  
  - 사람인 같은 플랫폼 통해 내가 관심 있는 기부 추천 가능.
* 조교  
  - 채점할 때, 비교만 하면 자동으로 채점하게
* 색깔을 바꿔야하는 것  
  - 병원마다, 색소를 다르게 해서 스타일 트랜스퍼 이용하여 같은 색깔로 통일  
  - … 예측하기 쉬워짐
* 휴대폰에서 잘 쓰는 앱들을 바탕화면에 강제 배치 (업데이트)  
  - 터치하는 위치도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치
* 동영상에 마스킹을 씌우는 틀  
  -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것 같음
* 앱에 아무것도 없는데 100만원  
  - 애완돌 – 과시
* 얼굴 이미지 보고, 행동을 디텍팅
* 어플을 통해
* 유튜브 내 상품들을 바로 리스트로 보여주고 URL
* 인터넷 기사나 사람들의 견해를 긍부정 분석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긍부정  
  - 주식에 활용되기 좋음
* 자동 계산  
  - 편의점 계산
* 상황을 예측해서 대안 방안 추천하는 시스템
* 일주일 간의 타임스케줄 기록 -> 한 달뒤 이렇게 살고 있을거야 예상해 줌.
* 디자이너가 사람의 체형을 보고 옷을 만들어 줌.
* 엘리베이터 노선 최적화
* 보일러 한번에 컨트롤
* 컨테이너 배치 최적화 – 도선사의 매칭 시스템  
  - **도선사**가 하는 일들을 AI가 하도록
* 근처 병원의 상황, 그 주변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이를 알 수 있으면 좋을 듯
* 배에 오는 것들을 어디다 세우고, 어느 배에 어떻게 위치하고(배 주차) 기름을 어떻게 운반 해야하는 지 조사하면 좋을 듯
* 배우 유년부터 노년시절까지 딥러닝 통해 에이징 모델을 만들 수 있음.
* 컬러링  
  -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바꿀 떄  
  - 위성 사진을 웹 사진으로 바꿔 주기
* 목요일에 학습된 모델들 토대로 토의하면 좋을 듯!
* Azure 모델들 보고 오기!